

##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in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HeeCheol Choi<sup>1</sup>, Hee Jung Park<sup>2\*</sup>, Hye Jung Shin<sup>3</sup>

<sup>1</sup>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wangju Women's University, Professor

<sup>2</sup>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Professor

<sup>3</sup>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Kwangju Women's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in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The specific aims of this study were twofold: first, this study examined longitudinal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1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sponded that they were hearing impaired in both the 4th and 5th year surveys of the 2nd Wave (PESD) of the Panel Survey on Employment Disability. The longitudinal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and th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the variable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ongitudinal model of acceptance of disability met goodness of fit, a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utoregression coefficien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acceptance of disability significantly predicte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the future. Second, the longitudinal model of self-esteem met goodness of fit, a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utoregression coefficient of self-esteem, self-esteem significantly predicted self-esteem in the future. Third, the cross-lagged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on self-esteem in the future was significant in the positive. Fourth,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on acceptance of disability in the future was significant in the positive.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were reciprocal. The researcher discussed treatment alternatives to increase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Keywords:** Hearing impairment, acceptance of disabilities, self-esteem, PSED, ARCL

**Correspondence :** Hee Jung Park, PhD  
**E-mail :** parkhj@kwu.ac.kr

**Received :** December 14, 2022

**Revision revised :** January 10, 2023

**Accepted :** January 31, 2023

### ORCID

HeeCheol Choi

<https://orcid.org/0000-0002-5473-8460>

Hee Jung Park

<https://orcid.org/0000-0002-3653-2979>

Hye Jung Shin

<https://orcid.org/0000-0002-0892-0085>

## 1. 서론

청각장애인들은 청력손실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력손실은 언어습득 및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아개념 형성, 학업성취, 진로 및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는 많은 문제점과 논쟁들이 있으며 그 중 장애수용과 자존감은 정체성 통합(identity integration)에 중요한 변인이다(Giarratana-Oehler, 1976).

장애수용은 상실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장애인 개

개인은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장애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Li & Moore, 1998).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인 장애수용은 자신의 상실을 수용하는 가치전환의 과정이다(Dembo et al., 1956), 즉 장애수용은 장애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상실을 수용하는 과정이다(Li & Moore, 1998). Wright(1983)는 장애수용을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가치절하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장애는 단지 불편하고 제한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것, 장애를 숨기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장애수용 정도가 낮다고 보고된다(Hong et al., 2011). Park(2006)은 장애정도와 유형보다는 자존감, 교육정도, 고용여부, 재활서비스 이용정도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장애수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과 편견은 장애인 개개인의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ong, 2014). 자존감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Copyright 2023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eong, 2014)으로, 개개인이 스스로가 능력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긍정적 태도 또는 부정적 태도의 정도(Rosenberg, 1965)를 의미한다. Felker(1972)는 자존감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속감, 능력감, 가치감의 발달에 기인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자존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 환경적 변인, 개인별 변인 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Oh, 2015).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존감과 개인 적응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Jeong, 2014).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 정도 및 시기, 의사소통 방법 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Jambor & Elliott, 2005). 특히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수용과 같은 장애 특이 변인은 장애인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ark, 2015).

장애 특이 변인인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장애수용이 높으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Baik et al., 2014; Jeong, 2014; Kwon & Choi, 2016), 그 역으로 높은 자존감 역시 장애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Oh, 2015; Park, 2006). 또한 Kim(2002)은 장애수용과 자존감 교호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두 변인 간의 동시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특정한 시점에서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동시적 효과만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Kwon과 Choi(2016)는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 3차 년도와 4차 년도 결과를 활용하고, 자존감은 4차 년도와 7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장애수용은 1년, 2년, 3년 간격에서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Kim 등(2019)은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의 1차 년도, 2차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장애수용 간의 상호 예측도를 살펴본 결과, 자존감과 장애수용 두 변인은 종단적 교호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애수용과 자존감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과 자존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Choi 등(2022)은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의 1차 년도와 5차 년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자존감 변화궤적 잠재 계층에 따라 장애수용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존감 변화궤적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각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Jeong(2014)은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장애수용 및 자존감은 종단적으로 인과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수용과 자존감 두 변인의 동시적 효과와 전망적 효과를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 및 자존감의 자기회귀 효과와 두 변인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수용의 자기회귀 효과는 1년 간격에서 유의한가?
- 둘째, 자존감의 자기회귀 효과는 1년 간격에서 유의한가?

셋째, 장애수용의 자존감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는 1년 간격에서 유의한가?

넷째, 자존감의 장애수용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는 1년 간격에서 유의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의 4차 및 5차 년도 조사 모두에 참여한 청각장애인 301명이다. 2차 웨이브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15~64세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4차 년도에 기준 한 301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53명(50.8%), 여성 148명(49.2%)이었고, 연령은 40대 미만보다 4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고, 40대 62명(20.6%), 50대 72명(23.9%), 60대 72명(23.9%)이었다. 장애 정도는 경증이 225명(74.8%)으로 중증 76명(25.2%)보다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130명(4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결혼·동거가 154명(51.2%)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는 수도권의 151명(50.2%)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경제활동은 취업자 158명(52.5%)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301)

Factor	n (%)	Factor	n (%)
Gender	Male 153 (50.8)	Education	Illiterateness 19 ( 6.3)
	Female 148 (49.2)		Elementary school 44 (14.6)
Age (yrs)	15~29 44 (14.6)	Middle school 38 (12.6)	
	30~39 51 ( 6.9)	High school 130 (43.2)	
	40~59 62 (20.6)	Bachelor's degree 66 (21.9)	
	50~59 72 (23.9)	Master's degree 4 ( 1.3)	
	60 ≤ 72 (23.9)	Marital status	Single 93 (30.9)
Severity	Severe 76 (25.2)		Marriage 154 (51.2)
	Mild 225 (74.8)	Divorce · Others 54 (17.9)	
Region of residence	Capital area 151 (50.2)	State of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158 (52.5)
	Metropolitan city 65 (21.6)		Unemployment 6 ( 2.0)
	Others 85 (28.2)		Non-economic activity 137 (45.5)

### 2. 연구도구

#### 1) 장애수용

PSED 2차 웨이브 조사(Korea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9)는 12개의 문항으로 장애수용을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 중 9개는 장애수용 척도(disability acceptance scale, Kaiser et al., 1987)에서, 3개는 자아수용검사(Kang et al., 2008)에서 발췌되었다. 문항 진술의 일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하였다.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장애인이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처럼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9개 문항은 긍정적으로, 3개 문항은 부정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다고 의미하도록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 분석에서 4개 문항은 전체-문항 상관계수가 .30보다 낮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차, 5차 년도 내적일치도는 각각 .863, .861이었다.

## 2) 자존감

PSED 2차 웨이브 조사(Korea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9)는 10개 문항으로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이는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Jon, 1974) 것이다. 자존감 척도의 문항들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긍정 진술 5개,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와 같은 부정 진술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형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 및 가치를 향한 태도가 긍정적이란 의미를 나타내도록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8번 문항은 장애인 연구에서 문항 총점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여(Choi et al., 2019) 분석에서 활용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8번 문항은 -.086의 전체-문항 상관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9개 문항의 4차, 5차 년도 내적일치도는 각각 .772, .651이었다.

##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에 업로드 되어있는 PSED 2차 웨이브 자료를 2022년 1월에 내려받아 사용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는 SPSS 15.0으로 처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다음처럼 이루어졌다.

첫째, 결측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의 모형기반추정(model-based imputation) 방법인 EM으로 보완하였다(Kline, 2005). 둘째, 자료의 정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측정 변인의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으로 3.0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고, 20.0을 초과하면 심각하다고 여겨진다(Kline, 2005). 측정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 -.333~.168 사이, -.202~.377 사이였다. 즉, 왜도와 첨도는 심각하게 여겨지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셋째,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종단적 동일성을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Wickrama et al., 2016). 측정모형의 동일성은 측정 시점의 시간 변화에 따라 장애수용과 자존감 척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알려준다. 측정모형의 동일성은 (1)형태 동일성, (2)약한 동일성(요인계수 동일성), (3)강한 동일성(절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Acceptance041												
2.Acceptance042	.685***											
3.Acceptance043	.733***	.680***										
4.Acceptance051	.387***	.417***	.380***									
5.Acceptance052	.344***	.438***	.313***	.748***								
6.Acceptance053	.358***	.376***	.403***	.698***	.665***							
7.Self-esteem041	.315***	.347***	.353***	.249***	.239***	.261***						
8.Self-esteem042	.311***	.324***	.306***	.269***	.270***	.306***	.563***					
9.Self-esteem043	.203***	.202***	.241***	.033	.042	.083	.448***	.550***				
10.Self-esteem051	.248***	.316***	.281***	.291***	.294***	.315***	.407***	.357***	.331***			
11.Self-esteem052	.308***	.334***	.293***	.318***	.333***	.333	.413***	.425***	.344***	.404***		
12.Self-esteem053	.188***	.185***	.245***	.244***	.179**	.217***	.341***	.343***	.407***	.458***	.333***	
Mean	9.571	6.113	9.900	9.446	5.984	9.906	8.482	8.358	8.602	8.380	8.370	8.884
Standard Deviation	1.896	1.562	1.936	1.922	1.470	2.074	1.210	1.242	1.663	1.262	1.255	1.640
Skewness	-.055	-.300	-.188	-.211	-.231	-.089	.168	-.333	-.072	-.044	-.164	-.139
Kurtosis	.255	.056	-.171	-.002	.060	-.205	.281	1.147	-.202	.377	.113	-.192

Note. 04, 05=observed time point; 1, 2, 3=number of observed variable of latent variable.

\*\* $p < .01$ , \*\*\* $p < .001$

편 동일성), (4)엄격한 동일성(잔차변량 동일성)으로 구분된다. 구조모형 검증에는 약한 동일성의 충족이 필요하다. 이런 동일성은 응답자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측정 변인의 내용을 유사하게 해석하고, 발달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Farrell, 1994; Hong et al.,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종단 연구에서 반복해서 측정된 측정 변인의 오차 중 일부는 같은 잠재 변인의 다른 측정 변인과 상관없는 체계적 변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측정 시점은 다르나 동일한 측정 변인의 오차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종종 보이므로 이를 모형에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는 상승하고, 적합도는 하강하게 된다(Pitts et al., 1996).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Appendix 1의 왼쪽과 같다. 잠재 변인에 표기된 숫자는 측정 시점을 나타내고, 요인계수 경로의 기호는 동일한 측정 변인 사이에 계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수용 변인의 종단적 요인계수 간의 동일성을 알아보려면 'a=a3, a=a4'처럼 동일화 제약을 가한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Appendix 1의 오른쪽과 같다.

4. 모형 적합도 평가와 비교

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모형 비교는 표집의 사례 수와 측정 변인의 수를 모두 고려하는 기준을 따랐다(Hair et al., 2006). 이는 사례수가 250명 이상인 경우에, 측정 변인의 개수를 3가지로 구분하여 다음처럼 제시되었다. 첫째, 측정 변인이 12개 미만이면,  $x^2$  값은 유의하지 않고, 다른 지수는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TLI, CFI는 .95이상, RMSEA는 CFI가 .97 이상이면서 .07 미만일 때 적합하고, SRMR은 상향되는 왜곡을 보이므로 다른 지수의 사용이 권장된다. 둘째, 측정 변인이 12개에서 30개 미만일 경우, 유의한  $x^2$  값이 기대되며, TLI와 CFI는 .92 이상, RMSEA는 CFI가 .97 이상이

면서 .07 미만일 때 적합하고, SRMR은 CFI가 .92 이상이면서 .08 이하일 때 적합하다. 셋째, 측정변인이 30개 이상이면, 유의한  $x^2$  값이 기대되며,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CFI가 .90 이상인 동시에 .07 미만이면 적합하고, SRMR은 CFI가 .92 이상이면서 .08 이하일 때 적합하다. 모형 비교는  $x^2$  차이 검증을 주로 사용하나, 사례 수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Cheung과 Rensvold(2002)는 대안으로 사례 수에 민감하지 않은 CFI 차이 검증을 제안했다. CFI 차이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교하는 모형은 차이가 없다고 평가된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장애수용, 자존감의 종단적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과 같다. 형태동일성 모형(기저모형)과 종단적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의 TLI, CFI, RMSEA는 적합도 기준(Hair et al., 2006)을 충족하였다.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한  $\Delta x^2$  값은 유의하였다.  $\Delta x^2$  값은 사례 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Delta CFI$ 를 살펴본 결과 .01을 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장애수용, 자존감의 각 요인계수의 크기가 시점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었다는 의미이다.

최종모형인 종단적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에서 장애수용, 자존감의 요인계수는 Table 4와 같다. 요인계수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요인계수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일화 제약은 동일한 잠재 변인의 동일한 측정 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에 대해 가해지므로,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두 시점 간에 동일하다.

Table 3. Goodness fit of model

Model	$x^2$	df	Comparison	$\Delta x^2$	TLI	CFI	$\Delta CF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60.342***	42			.982	.989		.038
Longitudinal metric invariance	62.270***	46	1 vs 2	1.929	.986	.990	.001	.034

\*\*\* $p < .001$

Table 4. Factor coefficient of longitudinal metric invariance model

Observed Variable	Factor	B	SE	$\beta$	Observed Variable	Factor	B	SE	$\beta$
Acceptance041		1.000		.862	Acceptance051		1.000		.654
Acceptance042	Acceptance04	.748***	.033	.799	Acceptance052	Acceptance05	.748***	.033	.785
Acceptance043		.993***	.044	.850	Acceptance053		.993***	.044	.733
Self-esteem041		1.000		.877	Self-esteem051		1.000		.576
Self-esteem042	Self-esteem04	.893***	.076	.846	Self-esteem052	Self-esteem05	.893***	.076	.672
Self-esteem043		.824***	.072	.797	Self-esteem053		.824***	.072	.628

Note. 04, 05=observed time point; 1, 2, 3=number of observed variable of latent variable.

\*\*\* $p < .001$

장애수용과 자존감 잠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하였다( $p < .001$ ). 첫째,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의 자존감이 높았다. 둘째, 자존감이 높을수록 장애의 장애수용이 높았다.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latent variables

Factor	Acceptance05	Self-esteem04	Self-esteem05
Acceptance04	.515***	.479***	.510***
Acceptance05		.341***	.546***
Self-esteem04			.781***

Note. 04, 05=observed time point.  
\*\*\* $p < .001$

## 2. 구조모형

장애수용과 자존감의 종단적 관계에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Table 6과 같다. 이 결과는 종단적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잠재 변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동일한 요인계수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상태로 구하였다. 구조모형의 TLI, CFI, RMSEA는 적합도 기준(Hair et al., 2006)을 충족하였다. 구조모형은 종단적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과 수학적으로 동등한 모형(Appendix 1)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는 동일하다.

**Table 6.** Goodness fit of structure model

Model	$\chi^2$	df	TLI	CFI	RMSEA
Structural model	62.270***	46	.986	.990	.001

\*\*\* $p < .001$

구조모형의 자기회귀 효과(안정성 계수)와 교차지연 효과는 Table 7, Appendix 2와 같다. 첫째, 4차와 5차 년도의 간격에서 장애수용의 자기회귀 효과는 정적이었다( $B=.460, \beta=.456, p < .001$ ). 둘째, 자존감의 자기회귀 효과는 4차와 5차 년도의 간격에서 정적이었다( $B=.610, \beta=.697, p < .001$ ). 셋째, 4차 년도 장애수용의 5차 년도 자존감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는 정적이었다( $B=.102, \beta=.177, p < .001$ ). 넷째, 4차 년도 자존감의 5차 년도 장애수용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는 정적이었다( $B=.188, \beta=.122, p < .001$ ).

**Table 7.**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Autoregressive effect	B	SE	$\beta$	Cross-lagged effect	B	SE	$\beta$
Acceptance04 → Acceptance05	.460	.070	.456	Acceptance04 → Self-esteem05	.102	.043	.177
Self-esteem04 → Self-esteem05	.610	.071	.697	Self-esteem04 → Acceptance05	.188	.113	.122

Note. 04, 05=observed time point.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를 검증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수용과 자존감의 두 변인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고, 연구결과에 바탕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은 1년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두 시점에 걸쳐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의 자기회귀계수는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이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시간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이전 시점에서 높은 장애수용을 나타내면 다음 시점의 장애수용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시간이 경과에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Jeong(2014)과 Choi 등(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자존감은 1년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두 시점에 걸쳐 청각장애인의 자존감의 자기회귀계수는 이전 시점의 자존감이 이후 시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자존감은 시간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잠재 계층에 따른 연구에서 Kim(2022)은 초깃값의 자존감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은 다르나 청각장애인의 자존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Kim(20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자존감은 이전 시점에서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면 다음 시점의 자존감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아본 결과, 4차 년도의 장애수용은 5차 년도의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높은 장애수용은 이후 시점의 자존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수용의 정도가 자존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Li와 Moore(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자존감이 다른 선행 요인의 결과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과도 유사한 결

과이다(Choi, 2011; Kim, 2002). 이 결과는 청각장애인의 긍정적인 장애수용은 자존감을 높이는 선행조건으로 작용하며 청각장애인의 선행적인 부정적 장애수용은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각장애인의 자존감과 장애수용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아본 결과, 4차 년도의 자존감은 5차 년도의 장애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도는 자존감과 스트레스 사이를 매개하였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도가 높다는 Choi와 Hyun(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긍정적인 장애수용은 자존감을 높이는 선행조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과 같이 자존감도 장애수용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의 부정적인 자존감은 장애수용을 저하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수용의 자존감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와 자존감의 장애수용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장애수용과 자존감의 두 변인이 상호 인과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종단적 관계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 더욱이 장애수용과 자존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 인과적 관계로 4차 년도의 장애수용이 향상되면 5차 년도의 자존감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4차 년도의 자존감이 향상되면 5차 년도의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존감의 변인 모두에 긍정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 두 변인 모두 장래에 향상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긍정적인 장애수용을 위해서는 자존감을 향상에 유익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자존감과 함께 장애수용도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hoi 등(2021)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수용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용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심리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각장애의 발생 초기부터 긍정적인 장애수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부정적인 장애수용을 최소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높은 자존감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이므로 청각장애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낮은 자존감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자존감은 종단적인 상호 인과적 관계로 높은 자존감은 장애수용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감각장애로 인한 청각장애인의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발생 시기가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냐에 따라 자존감이나 장애수용 등 주요 심리변인에 차이가 있을 것을 사료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보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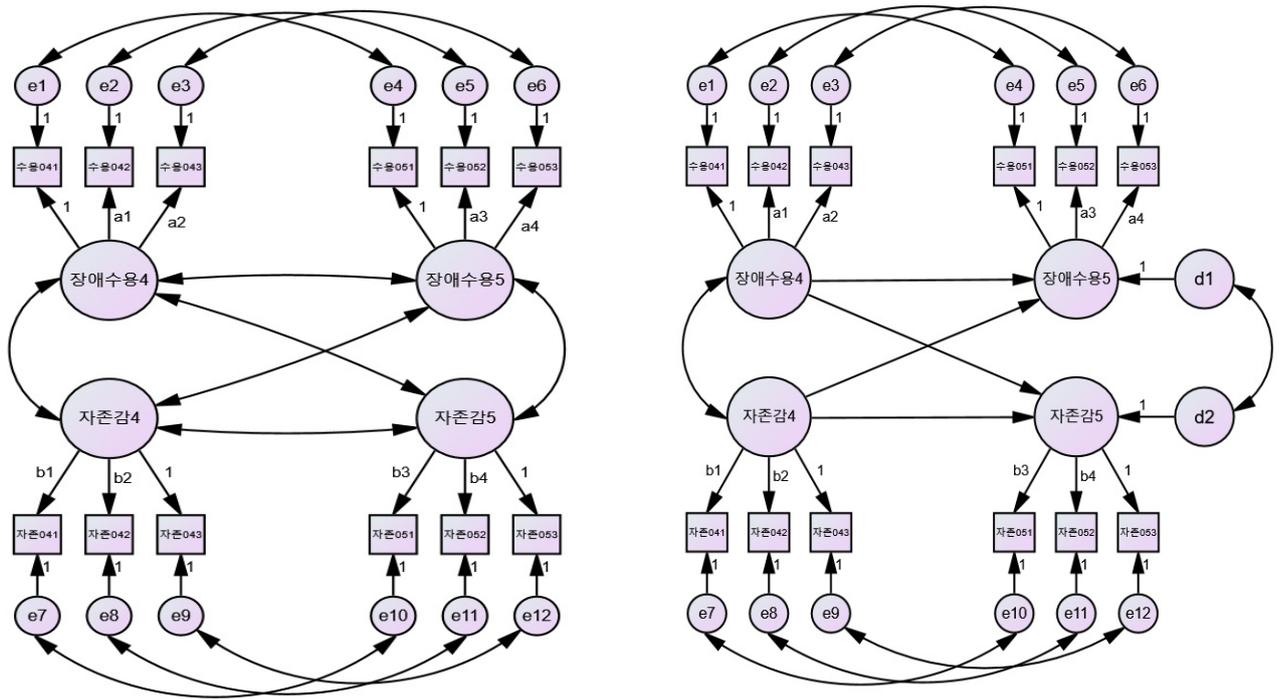
착용여부, 착용기간,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보장구 형태, 구화나 수화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 보장구 착용여부 및 착용기간, 보장구 형태, 의사소통 방법 등을 범주화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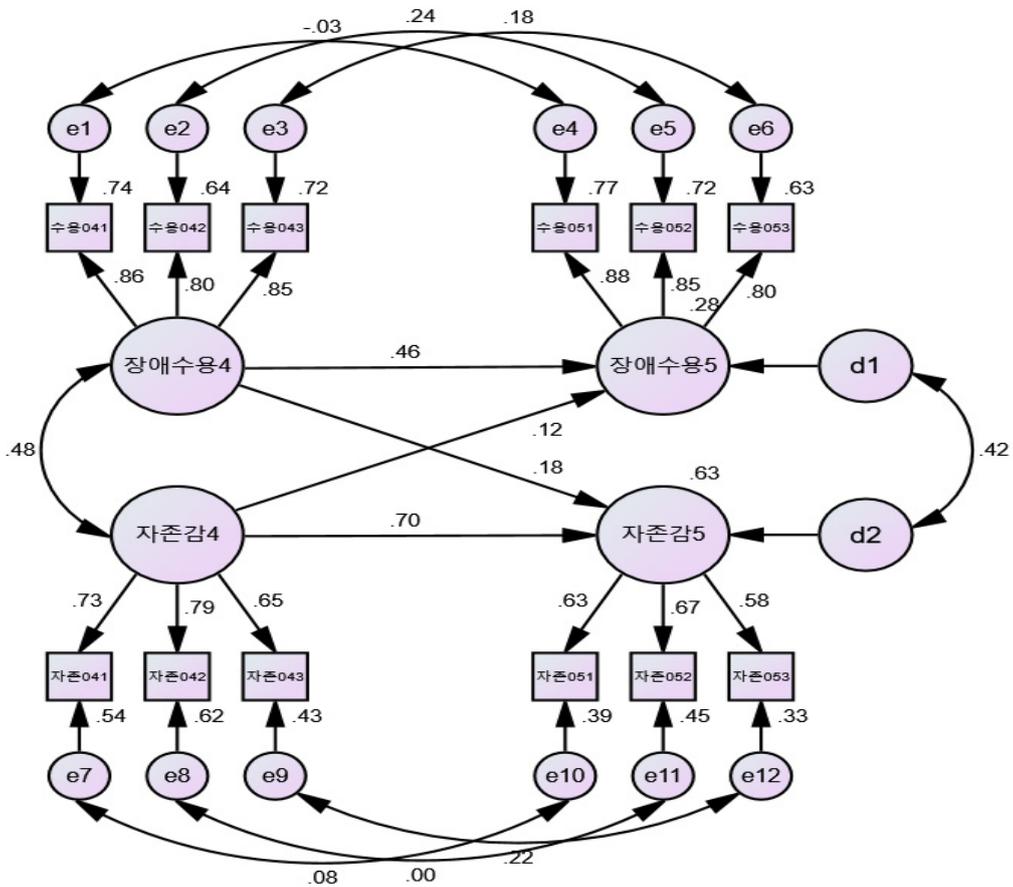
- Baik, K., Suh, Y. T., & Kim, Y. S. (2014). The relationship among acceptance of disability, self-esteem and happines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in daily life sports club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2(4), 133-144. doi:10.17006/kjapa.2014.22.4.133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Cho, Y., & Hyun, M. H. (2021).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tress of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31(4), 5-22. doi:10.15707/disem.2021.31.4.001
- Choi, H. C. (2011).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esting the vulnerability model, the scar model, and the reciprocal effects mode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6), 2251-2271. doi:10.15703/kjc.12.6.201112.2251
- Choi, H. C., Oh, S. G., & Kim, K. E. (2019).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trajectories and job satisfaction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2(4), 181-206. doi:10.20971/kcpcmd.2019.62.4.181
- Choi, H. C., Park, H. J., & Shin, H. J.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in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2(3), 67-85. doi:10.24009/ksehli.2021.12.3.004
- Choi, H. C., Seo, Y. K., Lee, M., & Kim, Y. M. (2022). Self-esteem growth trajectories and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9(2), 1-30. doi:10.34249/jse.2022.29.2.1
- Dembo, T., Leviton, G., & Whight, B. A. (1956). Adjustment to misfortune: A problem in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rtificial Limbs*, 3, 4-62.
- Farrell, A. D. (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ongitudinal data: strategies for examining group differences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477-487. doi:10.1037/0022-006X.62.3.477
- Felker, D. W. (1972). Prediction of specific self-evaluations from performance and personality measures. *Psychological Report*, 31(3), 823-826.

- Giarratana-Oehler, J. (1976). Personal and professional reactions to blindness from diabetic retinopathy. *New Outlook*, 7(6), 237-23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ong, S. H., No, U. K., & Jung, S. (2011). Factor structure of scale containing negatively worded items: A case of self-esteem scale.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23(3), 713-732. uci:G704-000051.2011.24.3.002
- Hong, S. H., Park, M. S., & Kim, W. J. (2007).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1), 129-143. uci:G704-000199.2007.21.1.001
- Jamor, E., & Elliott, M. (2005).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among deaf students. *Journal of Deaf Student and Deaf Education*, 10(10), 63-81. doi:10.1093/deafed/eni008
- Jeong, S. W. (2014). The prospective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on self-esteem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Disability & Employment*, 24(1), 167-197.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延世論叢*, 11(1), 107-130.
- Kaiser, S. B., Wingate, S. B., Freeman, C. M., & Chandler, J. L. (1987).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2(1), 51-58.
- Kang, Y. J., Park, J. K., & Gu, I. S. (2008). *Validation of the Self Concept and Self Acceptance Tes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ung Nam: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Kim, H. K. (2002). A study of acceptance toward handicap condition and self-esteem of students with physical handicapped.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y*, 40, 223-238. uci:I410-ECN-0102-2009-370-002734253
- Kim, Y. M. (2022).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trajectories,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5(3), 23-43. doi:10.20971/kcpmd.2022.65.3.23
- Kim, Y. M., Kim, H. R., & Choi, H. C. (2019).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of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2(1), 101-118. doi:10.20971/kcpmd.2019.62.1.101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9).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Sungnam: Author.
- Kwon, C. H., & Choi, H. C. (2016). The prospective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on self-esteem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rough analysis on PS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5(2), 149-172. uci:G704-001516.2016.55.2.008
- Li, L., & Moore, D. (1998).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1), 13-25. doi:10.1080/00224549809600349
- Oh, C. (2015). *The effects of the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on their Independent liv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 Park, J. K. (2015). The acceptance of a disability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1-28. doi:10.20971/kcpmd.2015.58.1.1
- Park, S. K. (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disability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2(1), 265-286. uci:G704-000662.2006.22.1.002
- Pitts, S. C., West, S. G., & Tein, J. 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4), 333-350. doi:10.1016/S0149-7189(96)00027-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ckrama, K. K., Lee, T. K., O'Neal, C. W., & Lorenz, F. O. (2016). *Higher-order growth curves and mixture modeling with Mplus: A practical guide*. New York: Routledge.
- Wright, B. A.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2nd ed.). New York: Harper & Row.

Appendix 1. Measurement model & structural equation model



Appendix 2. Structural equation model estimates, all estimates are significant at the  $p < .001$



##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최희철<sup>1</sup>, 박희정<sup>2\*</sup>, 신혜정<sup>3</sup><sup>1</sup>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sup>2</sup> 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sup>3</sup>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장애수용과 자존감의 자기회귀 효과를 알아보았다. 둘째, 이 연구는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알아보았다.

**방법:**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4차 년도 및 5차 년도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2회 모두에서 청각장애인이라고 응답한 301명이었다. 장애수용 12개 문항과 자존감 10개 문항을 이용하여 자기회귀 효과를 분석하였고, 두 변인 간의 교차지연 효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용의 종단적 측정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장애수용의 자기회귀계수를 측정된 결과, 4차 년도의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5차 년도의 장애수용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존감의 종단적 측정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자존감의 자기회귀계수를 측정된 결과, 4차 년도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차 년도의 자존감도 높았다. 셋째,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의 종단적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4차 년도의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5차 년도의 자존감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존감과 장애수용 간의 종단적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4차 년도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차 년도의 장애수용도 높게 나타났다.

**결론:**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존감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인 예측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수용과 자존감 간에 상호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검색어:** 청각장애, 장애수용, 자존감, PSED, ARCL

**교신저자:** 박희정(광주여자대학교)

**전자메일:** parkhj@kwu.ac.kr

**게재신청일:** 2022. 12. 14

**수정제출일:** 2023. 01. 10

**게재확정일:** 2023. 01. 31

**ORCID**

최희철

<https://orcid.org/0000-0002-5473-8460>

박희정

<https://orcid.org/0000-0002-3653-2979>

신혜정

<https://orcid.org/0000-0002-0892-0085>

## 참고 문헌

- 강용주, 박자경, 구인순 (2008). 자아 인식, 자아 수용 검사 타당화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관훈홍, 최희철 (201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149-172.
- 김영미 (2022). 여성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잠재 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 행복의 차이.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3), 23-43.
- 김영미, 김혜리, 최희철 (2019). 지체장애인의 자기존중감과 장애수용 간의 교호적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1), 101-118.
- 김하경 (2002).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교육**, 40, 23-38.
- 박수경 (200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2(1), 265-286.
- 박재국 (2015). 중증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삶의 만족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1-28.
- 백광, 서연태, 김연수 (2014). 지체장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관련성.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4), 133-144.
- 오찬교 (2015). 중도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정승원 (2014).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1), 167-197.
- 조예진, 현명호 (2021). 장애인의 자존감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장애수용도의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31(4), 5-22.
- 최희철 (2011).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적 관계: 인지적 취약성 모델, 상처 모델, 상호순환적 효과 모델의 검증. **상담학연구**, 12(6), 2251-2271.
- 최희철, 박희정, 신혜정 (2021).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삶의 만족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2(3), 67-85.
- 최희철, 서유경, 이미아, 김영미 (2022). 청각장애인의 자존감 변화과정과 삶의 만족, 행복, 장애수용 간의 관계. **특수교육연구**, 29(2), 1-30.
- 최희철, 오승진, 김경은 (2019). 지체장애인의 자기존중감의 발달 궤적과 직무만족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4), 181-2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2018년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2차 웨이브).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http://edi.kead.or.kr>).
- 홍세희, 노인경, 정승 (2011). 부정문항이 포함된 검사의 요인구조: 자아존중감 검사의 예. **교육평가연구**, 24(3), 713-732.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

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

**구**, 21(1), 129-143.